2019세계한상대회 여수시 유치 확정

해외 한인경제인 등 3000여 명 여수에 집결

2019년 10월15일부터 세계박람회장서 개최

여수시가 세계에서 활동하는 1000여 해외 한인경제인과 2000여 국내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2019년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르네상스 달라스 호텔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재단 제32차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제18차 한상대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계한상대회는 한민족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재외동포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서이남 전라남도 경제총괄팀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는 20개 동으로 구성된 전시 및 회의공간, 천정의 LED 영상과 함께 넓게 트여진 EDG(엑스포디지털갤러리) 구간의 개막식 및 야외 연회장,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1080실의 특급호텔, 빅오 갈라 디너쇼, 낭만버스킹 관광체험, 1930면의 넓은 주차 공간 등 최적의 인프라 시설을 소개했다.

또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파트너로서 전라남도의 핵심적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대부분의 한상이 평균 20일 정도 국내에서 체류함에 따라 장범준의 히트곡 여수밤바다와 함께 10월에 가볼만한 전남 관광지와 축제장, 먹고 싶은 남도음식, 40개의 골프장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이 전 운영위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등 전남 개최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재외동포재단 운영위원회 참석 대의원들은 단독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전라남도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후 만장일치로 차기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결정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여수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서 성공적 대회 개최를 확신한다"며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이남 팀장은 "내년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통해 약 2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6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추정된다"며 "내실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250개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포럼과 전남청년 뉴딜 일자리 박람회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활로를 모색하고 관광산업 투자가 확대되는 한편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제2기 여성리더대학 개강

70여 명 참여…女역량강화 위해 6월 28일까지 운영

장흥군은 지난 19일 군민회관에서 이란 주제로 제2기 장흥군 여성리더대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성플라자 위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지역 여성 7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군 여성리더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여성인재를 육성해 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일 개강해 오는 6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3시간 씩 11회에 걸쳐 운영한다.

지난 1기에서는 군민참여단 활동, 사회참여,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55명의 여성리더를 배출했다.

특히, 5개 조로 편성된 군민참여단은 지난해 장흥군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큰 도움이 됐다.

이번 제2기 참가자들은 여성친화도시, 안전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현장방문, 나의 생각을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 등 장흥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해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장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성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흥필 기자

진도군,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교육 연중 실시

21개소 대상…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등 교육

진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영양 순회 방문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군은 관내 100명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 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위생・안전, 영양 순회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손을 깨끗이 씻어요' 주제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급식소를 방문해 식재료 구매 및 보관, 조리 공정별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방법 등과 아울러 급식・간식 적정량 관리, 표준화된 조리법 권장, 염도 관리 및 미각 관리 방법 등 어린이들의 균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게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급식소 순회방문 교육을 포함 어린이, 학부모, 원장, 교사, 조리사 등의 교육 지원과 연령별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어린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더욱 안전한 급식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장동면-전입자 소통의 기회 마련했다

인구지키기 일환 간담회 개최

장흥군 장동면이 전입자와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장동면(면장 김광재)은 지난 20일 장동면 밤실마을에서 전입자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구지키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흥군 밖에서 전입한 부부 세대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김광재 면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편백도마를 전입 환경선물로 전달하고 군의 귀농귀촌 지원시책 홍보와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참석자들은 귀촌 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장동면에는 현재 서울, 광주를 비롯한 외지에서 170가구 260명이 20개 마을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장흥=김흥필 기자

무안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무안군은 논 토양의 규산 함량을 높이고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규산질 비료 공동살포비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토양개량제는 규산과 석회(석회고토, 패화석)이며, 논 토양의 경우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 밭 토양은 PH 6.5이상 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 패화석은 올해 3월까지 총 8,166톤이 공급됐고 이 중 규산은 3,248톤이다. 규산질비료는 모내기 이전에 살포하도록 하고 20kg 포당 500원을 지원한다.

군은 읍・면별로 공동살포단을 구성하여 적기 살포를 추진하고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살포기간을 따로 정하여 기간 내에 살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무안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

무안군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금년에 처음 도입된 이번 시책은 지역 내 청년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해외마케팅 및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군내에 본사나 주공장(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운영)이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상용근로자가 10명 이상,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 고용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은 이달 27일까지 무안군 허가경제과에 신청하면 되고 군은 일자리 성장성, 고용유지율, 청년고용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5월 중 3개의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